「취업진로연구」 제12권 제1호(통권 37호)
(사)한국취업진로학회
2022. Vol. 12, No.1, pp.027~046
DOI http://dx.doi.org/10.35273/jec.2022.12.1.002

논문접수일 : 2021년 10월 29일
최종수정일 : 2022년 01월 03일
게재확정일 : 2022년 03월 22일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과보호가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 내현적 자기애와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백영화(숙명여자대학교)**, **김봉환**(숙명여자대학교)***

국문요약

본 연구는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과보호가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에서 내현적 자기애와 자아분화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해당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수도권 소재의 4년제 대학에 재학 및 휴학 중인 대학생 5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SPSS 25.0, AMOS 25.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변인 간 상관분석을 실시하고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과보호, 내현적 자기애, 자아분화, 진로태도성숙 간의 서로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내현적 자기애와 자아분화가 부모의 과보호와 진로태도성숙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대학생 자녀가 부모의 양육태도를 과보호적으로 지각할수록 높은 내현적 자기애 성향과 낮은 자아분화 수준을 보이고 이는 낮은 진로태도성숙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내현적 자기애와 자아분화의 매개효과를 비교한 결과, 내현적 자기애의 매개효과가 자아분화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진로태도성숙의 증진을 위한 개입에 있어서 내현적 자기애가 자아분화보다 효과적인 변인임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 및 제한점을 논하였다.

주제어 : 부모의 과보호, 내현적 자기애, 자아분화, 진로태도성숙.

* 본 논문은 2019학년도 제1저자 백영화의 석사학위논문의 일부를 발췌한 것임.

** 제1저자,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학과 석사졸업; E-mail: yhyh528@naver.com
*** 교신저자,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7길 숙명여자대학교; E-mail: bongwhan@sm.ac.kr; Tel: 02-710-9387; Fax: 02-2077-7317.

Ⅰ. 서 론

대학생 시기는 성인기로의 진입을 앞두고 개인에게 주어지는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고 경제적·심리적 자립을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단계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김선경, 2018). 최근 취업 포털 잡코리아(2019)에서 4년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전공에 대한 회의감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힘들어하는 대학생을 일컫는 '대2병'이라는 신조어가 본인에게 해당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64%가 '그렇다'라고 답했다. 또한 실제로 대학생들이 교내 학생생활상담소를 찾는 가장 큰 이유도 학업과 진로문제라는(양민아, 2011; 홍나영, 2010) 통계가 있을 정도로 진로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에 따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상담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내담자 개인의 특성과 그가 처한 상황을 파악하여 가장 적합한 상담전략을 채택해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는 '차별적인 진단과 차별적인 처치(differential diagnosis and differential treatment)'가 꾸준히 주목받고 있다(김봉환・김계현, 1995).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내담자의 진로발달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다각적으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부합하여 진로지도의 궁극적 목표이자 핵심적 요소가 되는 개념이 바로 진로성숙이다(Super, 1984).

진로성숙은 진로선택과 계획단계에 있어서 발달의 정도를 나타내며, 진로결정기술을 의미하는 인지적 측면과 진로태도를 의미하는 정의적 측면으로 이루어진다(이기학, 1997). 인지적 측면은 제한된 시간 안에 다양한 능력을 측정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지만, 정의적인 측면인 진로태도는 객관적으로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로성숙을 설명하기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이기학, 1997). 진로태도성숙(Career Attitude Maturity)은 진로를 결정하고 직업 세계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인의 감정이나 기질 등을 포함하는 정서적 측면을 의미하며, 이는 개인이 자신과 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로를 계획하는데 확신을 갖고 결정하는 모든 태도를 포괄한다(Crites, 1971; Crites, 1978). 따라서 대학생의 효과적인 진로상담을 위해서는 진로태도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 요인과 더불어 환경에서의 외적 영향요인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들어 대학 교육과 취업 준비를 비롯한 직업훈련 기간이 연장되면서 대학생들이 성인기 과업을 시작하는 시점이 점점 늦어지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와 같은 입시 위주의 교육 환경에서는 대학에 입학해서야 비로소 자신의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탐색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부모입장에서 자녀 양육 기간이 대학 이후까지 이어지면서 자녀가 대학생이 되어서도 부모에게 돌봄을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정영해・강희순・김정숙, 2012; 정은지, 2012).

그 외에도 여러 구조적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먼저 핵가족화와 더불어 통계청(2019)의 2019년 기준 가임여성 1명 대비 출산율이 0.92명으로 기록될 만큼 가정 내 자녀의 수도 크게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가족형태의 축소화로 인해 소수의 자녀를 온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시켜야 한다는 기대와 부담이 커지고 그 책임이 전적으로 부모에게 부과되고 있다(이은화·이경우・이기숙, 1991). 또한 통계청(2019)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맞벌이 가구가 전체의 46.0%에 해

당할 만큼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맞벌이 부모의 경우엔 자녀와 함께 하지 못하는 시간을 보상하기 위해 외부 교육기관에 자녀의 가정교육 및 애정적 기능을 맡기지만 동시에 자녀와 감정적 교류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는 일종의 죄책감으로 자녀에게 과잉애정을 쏟고 통제를 가하는 등의 과보호를 하게 된다(강주희, 2013; 박아청, 1998). Cline과 Fay(1990)는 이처럼 자녀에 대한 높은 기대와 관심에서 출발하여 발달단계에 맞지 않게 자녀 주변을 맴돌며 지나치게 관여하고 과보호하려는 부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때 부모의 과보호(Overprotection of Parents)란 부모가 자녀에 대해 갖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해 자녀의 행동과 사회적 활동에 지나친 통제와 간섭을 가하고 자녀의 성장 단계와는 무관하게 할 일을 대신 해주는 등 자녀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태도를 의미한다(정은영, 2008).

특히 이러한 과보호적 양육태도는 우리나라만의 특징을 갖는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한국의 과보호 양육태도는 자녀의 자율을 강조하는 한편, 자녀를 보호 및 소유하려는 양가적인 태도를 보이므로 다양한 문제들이 혼재되어 있는 양육태도라고 할 수 있다(김경미, 2003). 더욱이 서구에서 과보호가 '지나친 통제'의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것과 달리, 한국에서는 '지나친 애정'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한국의 청소년들은 과보호를 부모의 관심과 돌봄으로 왜곡하여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Rohner & Pettengil, 1985: 이지선, 2016에서 재인용). 이는 부모-자녀 간의 연대감과 일치감을 강조하고 부모로서의 헌신을 강조하는 등 한국의 가족주의적인 문화적 특성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장성숙, 2007).

이렇듯 한국의 가족문화 특성에서부터 기인하는 과보호 경험으로 인해 자녀가 겪는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은 어린 시절에는 분명히 드러나지 않다가 성인 초기 전환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나타나게 된다(Teyber, 2006). 따라서 성인 초기 전환기에 해당하는 대학생에게 부모의 과보호는 심리, 정서적 측면뿐만 아니라 다양한 발달 과업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들의 진로발달 및 진로성숙에 관한 부모의 영향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큰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이종범, 2005; 선혜연, 2008). 그러나 아직 대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과보호와 진로태도성숙에 관해서는 직접적으로 연구된 바가 없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두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 자녀가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를 높게 지각할수록 진로태도성숙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남희정, 2017; 송지은, 2016).

한편, 과보호 경험과 같은 가족체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은 개인의 성격이나 개인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성격 변인들을 함께 고려하는 통합적인 접근의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과보호와 진로태도성숙을 매개하는 개인의 심리적 변인으로 내현적 자기애와 자아분화를 가정하였다.

내현적 자기애와 자아분화에 대해 살펴보면, 두 개념은 근본적으로 유아기적 경험에서 비롯된 자기개념을 바탕으로 하며 타인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외부의 자극에 반응한다는 점에서 배경적 공통점을 갖는다. 하지만 타인과의 정서적 고리에서 벗어나 스스로 이성적인 사고를 통해 의사결정 할 수 있는 능력을 자아분화라 하며, 유아기적 자기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대자기를 안으로 억압하는 양상을 내현적 자기애라 명명하는 점에서 두 개념은 상반된다.

먼저 내현적 자기애(Covert Narcissism)는 자기애의 한 유형으로 적대감과 분노를 억압하는 형태를 보이며 타인의 반응에 지나치게 민감하고 자존감에 상처가 될 상황을 회피하는 것이 특징이다(권석만 · 김지영, 2002). 이러한 경향은 자신이 못하는 것에 대한 열등감과 수치심을 감추려는 동기가 강하고 자신은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되고 상처를 받아서도 안 된다는 비합리적인 사고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Akhter & Thomson, 1982).

이렇듯 자신에게 지나치게 몰두하는 내현적 자기애의 특성은 진로발달의 측면에서도 방어적인 태도를 유발하기 쉽다. 특히 내현적 자기애 성향의 사람이 느끼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진로발달의 측면에서 불가피하게 부딪히게 되는 실패와 좌절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적절한 대처방안을 강구하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권미소, 2015). 또한 내현적 자기애 성향으로 인해 유발되는 우울과 불안과 같은 심리 부적응적 특성 역시 진로발달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연구를 통해 다루어진 바 있다(Amir & Gati, 2006; Amir, Gati, & Kleiman, 2008). 내현적 자기애와 진로성숙의 관계를 살펴본 권미소(2015)의 연구에 따르면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강한 대학생일수록 진로성숙의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고 보고한다.

한편, 내현적 자기애는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와도 관련이 깊다. Millon(1996)은 부모가 자녀에게 과도한 애정과 비현실적인 과잉 평가를 제공할 때 자녀가 자기애성 성격을 형성한다고 보았다. 즉 과보호를 받은 자녀가 부모의 과잉기대를 충족시키기 어려워지면 부모의 거절을 예상하고 두려움을 느껴 거짓 자기를 발달시키는데, 이와 같은 방식을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적용하여 자신의 부족한 모습이 들킬까 두려워하는 방어적인 내현적 자기애 성격을 발달시킨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연구를 통해 과보호 양육태도와 내현적 자기애 간의 유의한 상관이 있음이 밝혀졌다(강선모 · 임혜경, 2012; 정수인, 2014; 정은지, 2013; 조이정, 2015).

과보호 양육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또 다른 변인으로는 자아분화(Self-Differentiation)를 들 수 있다. 자아분화란 자녀가 어머니와의 융합에서 서서히 벗어나 자신의 정서적 자주성을 향해 나아가는 생애 전반에 걸친 장기적인 과정이며, Bowen(1976)의 가족체계 이론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이다. 즉, 가족과 가족 이외의 관계에서 자아를 견고하게 유지 시킬 수 있는 능력이며 더 넓게는 자신의 자아를 타인의 정서에 융합시키지 않고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Bowen, 1986). 따라서 자아분화가 잘 형성된 사람은 타인과 외부세계를 객관적으로 지각하며, 사고와 감정의 균형을 이루고,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목표 지향적 삶을 살아간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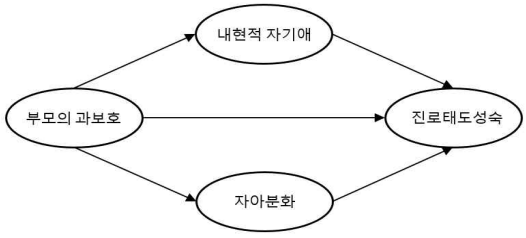
Bowen(1976)은 부모의 양육태도를 돌봄과 과보호의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었는데, 두 차원 모두 자녀의 자아분화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자아분화가 부모의 양육태도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을 알 수 있다(이은주, 2001; 홍원표, 2013). 하지만 지금까지 과보호와 자아분화의 관계를 밝혀낸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과보호는 양육태도의 하위요인에 포함되어 연구된 것을 알 수 있다(김미경, 2010; 김진영, 2012; 홍원표, 2013). 그러나 최근 다양한 사회적 변화로 인해 자녀 양육 장면에서 과보호 양육태도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는 만큼 과보호가 양육태도의 하위 변인으로 다루어지기보다 하나의 변인으로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아분화는 진로태도성숙과도 관련성이 높다. Johnson(2014)은 대학생들이 높은 수준의 자아분화를 가질수록 건전한 진로발달을 촉진하여 높은 직업 정체감을 갖게 되고 진로 의사결정 시 어려움을 덜 겪는다고 밝혔으며, 국내의 선행연구들에서도 개인의 자아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사고와 감정의 균형을 이루고 그로 인해 자발성과 함께 정서적 충동에 저항할 수 있는 자제력을 갖게 되어 진로태도성숙도가 높아진다고 보고한다(우은미, 2012; 육근선,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과보호로 인해 촉진되어 진로태도성숙을 방해하는 부정적 매개변인으로 내현적 자기애를 설정하고, 부모의 과보호를 완충하는 긍정적 매개변인으로는 자아분화를 설정하여 두 변인의 효과 차이 비교를 통해 대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이때, 내현적 자기애와 자아분화 간의 경로를 설정하지 않은 것은 두 변인의 방향성은 상반되지만 개념적으로는 비교적 유사하므로 둘 중 상담 시 더욱 유용하게 접근할 수 있는 변인을 가려내기 위함이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으며, 구체적인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과보호, 내현적 자기애, 자아분화, 진로태도성숙은 관계가 있을 것이다. 둘째, 내현적 자기애는 부모의 과보호와 진로태도성숙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셋째, 자아분화는 부모의 과보호와 진로태도성숙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그림 1> 연구모형



II. 연구방법

2.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수도권인 서울, 경기, 인천 세 지역 소재의 4년제 대학 9곳에 재학 및 휴학 중인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의 학생임이 입증 가능한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조사로 실시되었다. 수집된 542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문항이 있는 31부의 설문을 제외한 후 총 511부를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23.14세(SD=3.45)이며, 학년은 4학년이 146명(28.6%), 1학년이 141명(27.6%), 3학년이 117명(22.9%), 2학년이 107명(20.9%) 순으로 구성되었

다. 이들 중 여자는 290명(56.8%), 남자는 221명(43.2%)의 분포를 보였으며, 서울 소재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260명(50.9%)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경기 소재 133명(26.0%), 인천 소재 112명(21.9%), 기타 6명(1.2%)순이었다.

2.2 측정 도구

2.2.1 부모의 과보호 척도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과보호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정은영(2008)이 한국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발하고 타당화한 '자녀가 지각하는 어머니의 과보호 척도'를 조이정(2015)이 과거형 문장으로 바꾸고 어머니를 부모님으로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하위요인은 과잉기대, 과잉간섭, 밀착통제, 투사적 과보호, 자녀 분리불안 5가지로 총 25문항이며,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1= 전혀 그렇지 않았다, 4= 매우 그랬다) 구성되었다. 정은영(2008)의 연구에서 각 하위 요인들의 신뢰도(Cronbach's α)는 순서대로 .89, .85, .78, .83, .65이며, 조이정(2015)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는 .89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신뢰도 .89, 각 하위요인 별로 .81, .65, .80, .83, .70의 신뢰도를 나타냈다.

2.2.2 내현적 자기애 척도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Akhtar와 Thomson (1982)의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임상적 특성; Covert Narcissism Scale(CNS)>을 참고하여 개발한 강선희와 정남운(2002)의 '내현적 자기애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목표불안정, 인정욕구/거대자기 환상, 착취/자기중심성, 과민/취약성, 소심/자신감 부족의 5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45문항으로 5점 Likert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이다. 강선희와 정남운(2002)의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90, 각 하위 요인들의 신뢰도는 순서대로 .89, .81, .74, .80, .77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전체 신뢰도 .92, 각 하위요인 별로 .91, .79, .79, .84, .78의 신뢰도를 보였다.

2.2.3 자아분화 척도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자아분화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Bowen의 가족체계이론을 토대로 대학생의 자아분화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정혜정과 조은경(2007)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개발한 '한국형 자기분화 척도'를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은 심리 내적 차원의 정서적 반응과 자기입장, 대인관계 차원의 타인과의 융합과 정서적 단절, 그리고 심리 내적인 차원과 대인관계 차원을 모두 포함한 정서적 융합이며, 총 5개 하위요인의 38개 문항으로 구성된 6점 Likert식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6= 매우 그렇다)이다. 정혜정・조은경(2007)의 연구에서 산출된 자아분화의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89였으며, 각 하위요인 별로는 .84, .73, .78, .69, .80의 신뢰도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신뢰도 .92, 하위요인별로 .83, .83, .80, .83, .82 의 신뢰도를 나타냈다.

2.2.4 진로태도성숙 척도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태도성숙도를 측정하기 위해 이기학(1997)이 수정·개발한 진로태도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결정성, 준비성, 독립성, 목적성, 확신성의 5개 하위요인으로 총 47문항이며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 구성되었다. 이기학(1997)의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88로 나타났으며, 각 하위요인의 신뢰도는 순서대로 .88, .76, .76, .75, .75의 수치를 보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전체 신뢰도 .90, 하위요인 별로 .90, .77, .85, .83, .75의 신뢰도를 나타냈다.

2.3 자료분석

본 연구는 소속된 기관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통과한 후, 온라인을 통해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후 수집된 자료를 SPSS 25.0과 AMOS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SPSS 25.0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및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연구에 사용된 각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신뢰도(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변인들 간의 경로와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AMOS 25.0의 구조방정식 분석 절차인 2단계 접근으로 모형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1단계, 측정모형 검증을 통해 모형적합도를 확인하고 2단계, 구조방정식 모델을 분석하였다. 넷째, 부모의 과보호와 진로태도성숙의 관계에서 내현적 자기애와 자아분화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각 변인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의 유의성 검증이 가능한 부트스트래핑 검증(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3.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치 및 상관분석 결과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부모의 과보호, 내현적 자기애, 자아분화, 진로태도성숙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각 변수들 간의 상관, 평균값,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 독립변인인 부모의 과보호는 진로태도성숙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r=-.29$, $p<.01$)을 보였고 내현적 자기애와는 정적 상관($r=.32$, $p<.01$), 자아분화와는 부적 상관($r=-.38$,

p<.01)을 보였다. 종속변인인 진로태도성숙은 내현적 자기애와 부적 상관(r=-.61, p<.01)을 보였고, 자아분화와는 정적 상관(r=.46, p<.01)을 보였다. 또한 매개변인인 내현적 자기애와 자아분화는 서로 높은 부적 상관(r=-.77, p<.01)을 보였다. 이러한 높은 상관으로 인해 다중공선성 상의 문제가 제기되어 회귀분석을 통해 공선성진단을 실시한 결과, 내현적 자기애(VIF=2.87), 자아분화(VIF=2.99) 모두 다중공선성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기준(VIF=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 상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주요 변인 간 기술통계치 및 상관관계

	부모의 과보호	내현적 자기애	자아분화	진로태도성숙
1. 부모의 과보호	-			
2. 내현적 자기애	.32**	-		
3. 자아분화	-.38**	-.77**	-	
4. 진로태도성숙	-.29**	-.61**	.46**	-
평균(Mean)	2.03	2.92	3,61	3.42
표준편차(S.D)	.49	.56	.69	.48
왜도(skewness)	.35	-.04	-.04	.17
첨도(kurtosis)	-.53	-.15	-.29	-.65

※ **p<.01

3.2 측정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는 매개효과를 검증하기에 앞서 부모의 과보호, 내현적 자기애, 자아분화, 진로태도성숙의 잠재변인과 해당 측정변수들과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에 요인 부하량(β)을 확인한 결과, 진로태도성숙의 하위요인인 준비성의 요인 부하량(β)이 .128로 작게 나타났다. 이는 홍세희(2000)의 연구에서 제시한 요인부하량 값은 .5 이상이 양호하며 .7 이상일 때 바람직하다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정도로 낮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검정하는 과정에서 항목묶음(item-parceling)으로도 모형이 성립된다는 선행연구를 근거로 해당 요인을 제거한 후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항목과 구상개념 간의 균형(item-to-construct balance) 기법(조현철・강석후, 2007)을 사용하여 문항 묶음을 통해 하위요인을 3묶음으로 다시 설정하였다(이지현・김수영, 2016; 문지혜, 2019; Little, Rhemtulla, Gibson, Schoemann, 2013). 설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모의 과보호 하위 요인에서 과잉간섭과 밀착통제, 투사적 과보호와 자녀 분리불안, 과잉보호를 각각 한 묶음으로 설정하였고 내현적 자기애의 하위요인에서 목표불안정, 착취/자기중심성과 과민/취약성, 인정욕구/거대자기 환상과 소심/자신감 부족을 각각 한 묶음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자아분화는 기존의 분류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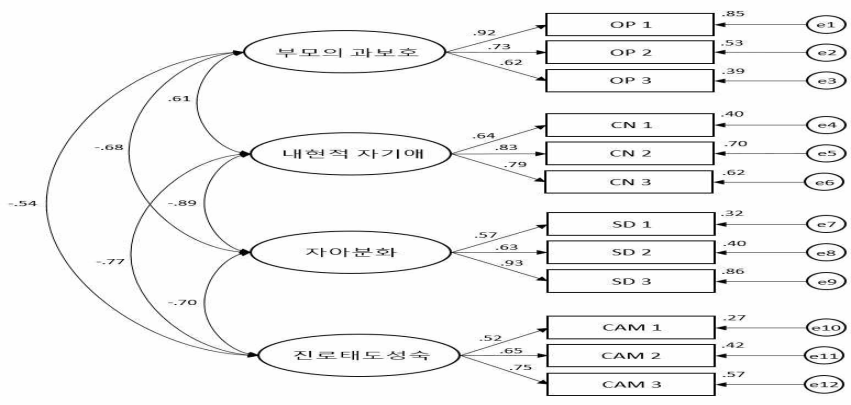
따라 심리내적 차원, 대인관계 차원, 심리내적+대인관계 차원으로 측정변인을 구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진로태도성숙은 독립성, 결정성, 목적성과 확신성을 측정변인으로 설정하였다.

항목 묶음을 실시한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검증한 결과, 일반적으로 CFI, TLI가 .90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이고, RMSEA는 .05 이하이면 매우 좋으며, .08이하면 양호하고, .10 이하면 보통인 것으로 판단하는데(우종필, 2012), 해당 연구에서의 적합도 지수는 χ^2 통계치가 228.78 (df=43, p<.001), TLI가 .918, CFI가 .946 이며 RMSEA 값은 .092로 나타났으므로 기준치를 만족하는 수준이며 측정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수정한 최종 측정모형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각의 측정항목들에 대한 표준화 요인적재량이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준 요인부하량(β)이 .50 이상이어야 함을 고려할 때(홍세희, 2000), 모든 요인부하량이 .50을 상회하므로 개념타당성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집중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해 개념신뢰도(CR)와 평균분산추출(AVE) 값을 검증한 결과, 개념신뢰도(CR)는 부모의 과보호 .910, 내현적 자기애 .877, 자아분화 .826, 진로태도성숙 .788로 나타나 모두 Fornell과 Larcker(1981)가 제시한 .70의 값을 상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잠재변인들의 평균분산추출(AVE) 값은 위의 순서대로 .775, .736, .625, .561로 나타나 모든 변인에서 Fornell과 Larcker(1981)가 제시한 .50의 값을 상회하므로 수렴타당성을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판별타당성은 변수 간 표준오차에 2를 곱한 수를 상관계수에 ±하여 그 범위가 1을 포함하지 않으면 판별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데(우종필, 2012), 본 연구에서는 상관이 가장 크게 보고된 내현적 자기애와 자아분화를 대표로 검증하였다. 두 변수의 상관은 .89이며 표준오차는 .029이므로 식에 대입하면 [-0.83~0.95]의 범위가 도출되어 해당 범위 내에 1을 포함하지 않아 판별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로써 측정 변인들은 해당 잠재변인을 적절하게 측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종 측정모형에 대한 추정 결과는 그림 2와 같으며 분석 결과 값은 표 2에 제시하였다.

<그림 2> 최종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



<표 2> 최종 측정변인의 요인부하량

		B	β	S.E.	C.R.	개념 신뢰도 (CR)	평균분산 추출값 (AVE)
부모의 과보호	OP 1	1.000	.924			.910	.775
	OP 2	1.151	.726	.079	14.600***		
	OP 3	.768	.617	.061	12.516***		
내현적 자기애	CN 1	1.000	.636			.877	.736
	CN 2	.923	.834	.061	15.166***		
	CN 3	.785	.786	.054	14.578***		
자아 분화	SD 1	1.000	.568			.826	.625
	SD 2	.895	.634	.080	11.134***		
	SD 3	1.678	.929	.128	13.154***		
진로 태도 성숙	CAM 1	1.000	.521			.788	.561
	CAM 2	.947	.647	.101	9.364***		
	CAM 3	.760	.754	.076	9.966***		

※ ***p<.001

3.3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과보호, 내현적 자기애, 자아분화, 진로태도성숙의 관계구조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검증하였다. 연구모형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적합도 지수를 확인한 결과, χ^2 통계량은 250.043(df=44, p<.001)으로 도출되었고, TLI와 CFI는 각각 .911, .941로 나타나 .90 이상의 수치를 보여 적합도가 우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RMSEA는 .096로 나타나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수용 가능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우종필,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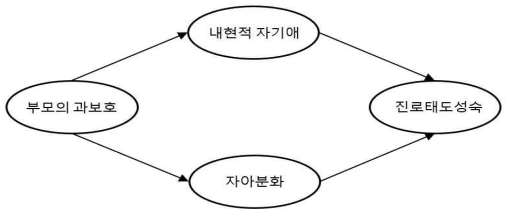
검증 결과, 부모의 과보호가 내현적 자기애로 가는 경로(β=.516, p<.001), 부모의 과보호가 자아분화로 가는 경로(β=-.637, p<.001), 내현적 자기애가 진로태도성숙으로 가는 경로(β=-.849, p<.001), 자아분화가 진로태도성숙으로 가는 경로(β=.175, p<.05)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왔지만, 부모의 과보호가 진로태도성숙으로 가는 경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에서 해당 경로를 제외하여 부모의 과보호와 진로태도성숙의 관계에서 내현적 자기애와 자아분화가 각각 완전 매개하는 수정모형을 추가로 설정하여 구조방정식을 분석하였다. 연구모형과 수정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값은 표 3과 같고 수정모형은 그림 3 에 제시하였다.

<표 3> 연구모형과 수정모형의 적합도 비교

모형	χ^2	df	$\Delta\chi^2/df$	TLI	CFI	RMSEA
연구모형	250.043***	44	-	.911	.941	.096
수정모형	250.407***	45	0.364	.913	.941	.095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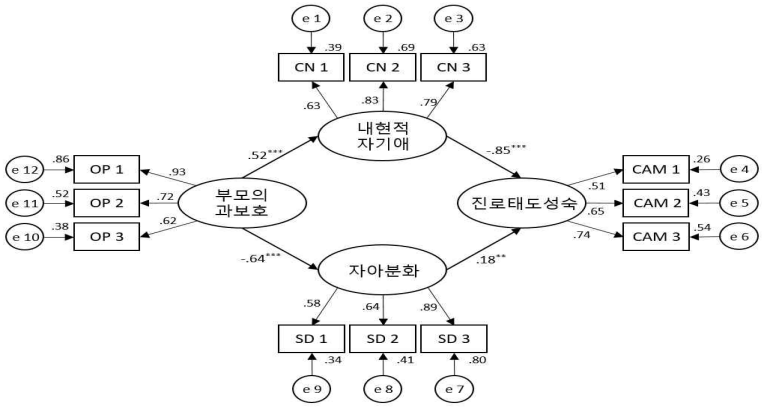
<그림 3> 수정모형



먼저 수정모형의 모델 적합도를 살펴보면 수정모형(df=45)이 연구모형(df=44)에 비해 더 높은 자유도를 가지고 있지만 연구모형의 χ^2은 250.043이며, 수정모형의 χ^2은 250.407로 그 차이가 0.364에 불과하였다. 해당 모형은 내포모델비교(nested model comparison) 방식으로 연구모형 대비 수정모형이 △df=1 기준 △χ2=3.84를 기준으로 그 이상일 경우 수정모형을 선정하고 △χ2 < 3.84일 경우 간명한 모델(parsimonious model)을 선정하는 것이 적절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접근 방식을 고려할 때 내포모델비교 접근으로 △df=1 기준 △χ2 < 3.84이므로 간명성 원칙에 따라 자유도가 더 높은 수정모델을 최종 모델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른 수정모형의 경로계수를 그림 4와 표 4에 제시하였으며, 수정모형의 모든 경로계수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수정모형의 경로계수



<표 4> 수정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B	β	S.E.	C.R.
부모의 과보호	→	내현적 자기애	.917	.518	.126	8.470***
부모의 과보호	→	자아분화	-.875	-.638	.116	-9.358***
내현적 자기애	→	진로태도성숙	-.808	-.853	.044	-10.345***
자아분화	→	진로태도성숙	.257	.175	.051	4.295**

※ ***p<.001, **p<.01

3.4 수정모형의 매개효과 검증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과보호와 진로태도성숙의 관계에서 내현적 자기애와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차이를 살펴보고자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Shrout와 Bolger(2002)의 제안에 따라 95% 신뢰구간에서 편차교정값(BC)이 0을 포함되지 않을 때 유의도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1000개의 Bootstrap 표본을 모수추정에 사용하였다. Bootstrap 절차를 통한 최종 모형의 직·간접효과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를 통해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수정 모형의 모든 경로의 구조계수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부모의 과보호가 내현적 자기애로 향하는 직접경로는 .518(.416~.571), 부모의 과보호가 자아분화로 가는 직접경로는 -.638 (-.730~-.536)로 나타나 두 경로 모두 95% 신뢰구간에서 편차교정값(BC)이 0을 포함하지 않아 직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내현적 자기애가 진로태도성숙으로 향하는 직접경로는 -.853 (-.951~-.763)으로 95% 신뢰구간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자아분화에서 진로태도성숙으로 이르는 직접경로는 .175(.113~.249)로 95% 신뢰구간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과보호에서 진로태도성숙에 이르는 간접효과도 -.660(-.749~-.554)으로 95% 신뢰구간에서 유의미하게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내현적 자기애와 자아분화가 부모의 과보호와 진로태도성숙 사이를 완전 매개한다는 사실을 도출할 수 있다.

<표 5> 수정모형의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Bootstrap 분석결과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B.C. (Lower, Upper)		
부모의 과보호	→	내현적 자기애	.518** (.416~.571)	-	.518** (.416~.571)
부모의 과보호	→	자아분화	-.638** (-.730~-.536)	-	-.638** (-.730~-.536)
내현적 자기애	→	진로태도성숙	-.853** (-.951~-.763)	-	-.853** (-.951~-.763)
자아분화	→	진로태도성숙	.175* (.113~.249)	-	.175* (.113~.249)
부모의 과보호	→	진로태도성숙	-	-.660** (-.749~-.554)	-.660** (-.749~-.554)

※ **p<.01, *p<.05

앞서 수정모형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부모의 과보호가 각각 내현적 자기애와 자아분화를 통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간접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이에 대한 각 매개변인의 개별 간접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검증을 추가로 실시하였으며, 그에 대한 결과를 아래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 수정모형의 간접효과 및 Bootstrap 분석결과

경로		효과 B.C. (Lower, Upper)
총 효과	부모의 과보호 → 진로태도성숙	-.660** (-.752 ~ -.553)
매개 효과	부모의 과보호 → 내현적 자기애 → 진로태도성숙	-.774** (-.875 ~ -.681)
	부모의 과보호 → 자아분화 → 진로태도성숙	.115* (.048 ~ .181)

※ **p<.01, *p<.05

결과를 살펴보면 부모의 과보호가 내현적 자기애를 거쳐 진로태도성숙에 이르는 간접경로가 -.774(-.875~-.681)로 95% 신뢰구간에서 편차교정값(BC)이 0을 포함하지 않아 내현적 자기애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부모의 과보호가 자아분화를 거쳐 진로태도성숙에 이르는 간접경로 또한 .115(.048~.181)의 수치를 나타내며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자아분화의 매개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검증되었다.

Ⅳ.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가족 관련 환경적 변인으로 부모의 과보호를 살펴보고 개인의 심리 내적 변인으로 내현적 자기애와 자아분화를 선정하여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각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부모의 과보호가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에서 내현적 자기애의 매개효과와 자아분화의 매개효과의 영향력을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각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여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주요 결과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각 변인들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 변인 간의 관계는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과보호가 자녀의 진로태도성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남희정, 2017; 박은혜, 2006; 송지은, 2015; 심종옥, 2011), 부모의 과보호가 자녀의 내현적 자기애와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정수인, 2014; 정은지, 2012; 조이정, 2015; Masterson, 2007)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부모의 과보호가 자녀의 자아분화 간의 부적 상관이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권소희, 2014; 김진영, 2012; 남상철, 2007; 남인숙, 2019; 오세나, 2016)와도 일치한다. 또한 내현적 자기애가 진로성숙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한 권미소(201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자아분화 수준이 진로태도성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많은 선행연구들(우은미, 2012; 육근선, 2013; 윤지현, 2016; 조미숙, 2013; 조인정, 2017)과도 일치한다. 마

지막으로 매개변인인 내현적 자기애와 자아분화도 높은 부적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길혜진(2017)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다음으로 부모의 과보호가 진로태도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내현적 자기애와 자아분화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여 Bootstrap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부모의 과보호와 진로태도성숙 간의 관계에서 내현적 자기애와 자아분화가 완전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과보호와 진로미결정의 관계에서 내현적 자기애가 완전매개효과를 나타냈다는 조이정(2015)의 연구와 큰 틀에서 일치하며, 내현적 자기애가 부모 양육태도와 진로미결정을 부분매개 한다고 밝힌 홍나영(2010)의 연구와는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가족체계가 균형을 이루면 개인의 자아분화 수준이 높아지고 이는 진로태도성숙을 이루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조미숙(2013)의 연구와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자아분화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그에 따라 진로태도성숙이 높아진다고 보고한 육근선(2013)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하는 결과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부모의 과보호가 직접적으로 자녀의 진로태도성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내현적 자기애 성향과 낮은 자아분화 수준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자녀의 낮은 진로태도성숙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내현적 자기애와 자아분화의 매개효과를 비교한 결과, 내현적 자기애의 매개효과가 자아분화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분화에서 진로태도성숙으로 이어지는 경로의 설명력이 약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타인과의 밀착된 관계에서 벗어나 정서적 자율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의미하는 자아분화의 심리 내적이고 대인관계적인 측면이 진로태도성숙에 크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자아분화의 발생수준에 따라 나눈 기본분화와 기능분화의 특성으로 살펴보면, 먼저 기본분화는 다세대 정서 과정에 의해 일정 수준의 분화를 이룬 후에는 환경에 의해 더이상 영향받지 않는 특성을 보인다. 반면 기능분화는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지만 주어진 상황 조건이 끝나면 원래의 기본분화 상태로 돌아오는 특성이 있어, 기본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기능분화 수준도 일관성 있게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김용태, 2003; 이대희, 2016). 이처럼 자아분화는 원가족 정서과정에 의해 유년 시절부터 형성된 자아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전 생애에 걸친 이해가 요구된다. 그에 비해 성인 초기 전환기에 해당하는 대학생의 진로태도성숙은 즉각적인 상황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개념적 차이로 인해 진로태도성숙을 설명하는 자아분화의 역할이 미비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반면,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고 칭찬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은 주체적인 진로탐색과 결정이 가능한지 측정하는 진로태도성숙에 상대적으로 높은 부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수치심에서 비롯되는 내현적 자기애의 자기방어 전략이 진로를 계획하고 탐색하는 과정에서 만성적으로 의기소침하고 회피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 진로태도성숙을 낮추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연구의 완전 매개모형에 따르면 부모의 과보호로 인해 왜곡된 자기상을 형성한

자녀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을 띄게 되고, 또한 건강한 정서 기능을 이루지 못해 자아분화 수준이 낮아져 진로태도성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는 대학생 자녀가 주체적으로 진로를 준비하고 목표할 수 있도록 성장 과정에서부터 자율성을 보장해주어야 하며, 자녀가 어려운 과제에 당면하더라도 스스로 극복하고 도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지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Ⅴ. 의의 및 제언

5.1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대학생의 지각된 부모의 과보호와 진로태도성숙의 관계에서 내현적 자기애와 자아분화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부모의 과보호가 자녀의 진로태도성숙을 설명하는 직접적인 변인은 아니지만, 자녀의 내현적 자기애 성향과 자아분화 수준에 영향을 주어 이러한 심리적 변인으로 인해 진로태도성숙 수준이 결정되는 것이 밝혀졌다. 이는 반대로 내현적 자기애와 자아분화라는 개인적 요인을 다룸으로써 진로태도성숙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대학생의 진로상담 과정에서 상담자는 내담자가 성장 과정에서 경험한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해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야기되는 내현적 자기애와 자아분화 수준을 비롯한 현재 개인의 심리내적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 더욱이 본 연구에서 내현적 자기애가 자아분화보다 진로태도성숙의 증진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개입에 용이한 변인임이 밝혀졌으므로, 상담자는 내담자가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의기소침하고 회피하고자 하는 모습이나 수치심에서 비롯된 자기방어를 내현적 자기애의 특성으로 볼 수 있을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러한 개인의 심리내적 요인은 단기간에 변화하기 어렵다는 것을 유념하여 장기적으로 내담자가 스스로에 대한 올바른 자아상을 구축할 수 있도록 현재의 좁은 조망을 넓혀주고 자신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자아분화 역시 진로발달의 측면 뿐만 아니라 내담자의 전생애적 측면에서의 정서적 자율성을 찾아가는 중요한 과정으로 인식하고 장기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존의 많은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모의 과보호를 양육태도의 일부로 여겨 하위요인으로만 살펴보는 데 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가족 형태의 변화로 인해 자녀를 과보호하는 부모의 양상이 늘어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과보호를 단독변인으로 설정하여 진로태도성숙과의 관계에서 내현적 자기애와 자아분화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셋째, 기존의 진로상담은 다양성이 부족하고 대상에 따라 특화되어 있지 않아 적용 가능성에

한계가 존재했으며 심리상담의 통합적 활용이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되어왔다(김봉환, 2005). 또한 김봉환・김계현(1995)은 내담자의 의사결정 수준에 따라 우유부단형의 진로문제를 이해할 때, 심층적인 심리상담을 통해 성격적인 문제를 먼저 다루어야 한다고 권유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본 연구는 부모의 과보호라는 환경적 요인과 내현적 자기애, 자아분화라는 개인의 심리 내적 요인을 동시에 살펴봄으로써 대학생 대상의 진로상담 장면에서 차별적인 진단과 개입을 통해 건강한 진로발달을 증진 시킬 수 있도록 도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5.2 연구의 제한점과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수도권 소재의 4년제 대학에 재학 및 휴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했으므로 연구 결과를 모든 대학생에게 일반화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지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과보호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자녀의 성별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다르다는 결과를 보고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부모의 과보호가 내현적 자기애와 자아분화를 거쳐 진로태도성숙에 이르는 본 연구의 경로에서 자녀의 성별에 따라 영향력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해볼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자기보고식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수집한 것으로, 응답자가 문항에 반응한 수준이 실제보다 축소되거나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검사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측정방식 도입을 통해 결과의 타당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개인의 전반적인 성장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과보호와 내현적 자기애, 자아분화와 같은 개인의 정서 발달적 변인은 전 생애적 측면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를 통해 개인의 발달과정을 심도 있게 다루는 종단연구를 실시하는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References)

강선모・임혜경 (2012). “대학생의 과보호 및 부모화 경험이 내현적 자기애 성향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9(4), 53-78.

강주희 (2013). 주 양육자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아동의 또래관계 관련성.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권미소 (2015). **비합리적 신념과 진로성숙의 관계에서 내현적 자기애와 낙관성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권석만・김지영 (2002). “자기 및 타인 표상과 대인관계 문제의 관계”.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1(4), 705-726.

권소희 (2014).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의 관계: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길혜진 (2017). **대학생의 부모화 경험이 우울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내현적 자기애와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경미 (2003). **과보호적 양육행동에 관련된 어머니와 아동의 특성**.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미경(2010).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분화가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봉환 (2005). "청소년 진로지도의 목표와 방법". **상담과 지도**, 40, 46-64.

김봉환 · 김계현 (1995). "진로 미결정에 관한 연구동향과 향후의 연구과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7**(1), 20-43.

김선경 (2018). **대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가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 거부민감성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용태 (2003). "가족의 기능성과 행복한 가족: 이론적 관점". **상담학연구**, 4(3), 591-608.

김진영 (2012).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자아분화 및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기독교인 대학생과 비기독교인 대학생을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남상철 · 유영달 (2007). "부모와 자녀의 양육태도 지각 및 대학생의 자아분화가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2(2), 51-75.

남인숙 (2019).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분노표현방식에 미치는 영향: 자아분화와 공감능력의 매개효과**.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남희정 (2017). **고등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과보호와 학습동기가 진로태도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남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문지혜 (2019). **아동기 정서적 외상이 전위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거부민감성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이중매개효과**. 대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은혜 (2006). **자아존중감, 부모의 양육태도 및 진로성숙도와의 관계 연구**. 광운대학교 정보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백영화 (2019).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과보호가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 내현적 자기애와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선혜연 · 김계현 (2008). "청소년 진로의사결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특성에 따른 부모의 관여방식 차이". **아시아교육연구, 9**(2), 161-179.

송지은 (2016). **부모의 과보호가 청소년의 특성불안 및 진로태도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 상태불안의 조절된 매개효과**.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심종옥 (2011).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 및 진로성숙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양민아 (2012). **내현적 자기애와 진로미결정의 관계에서 역기능적 진로사고의 매개효과와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양은희 (2017). **전문대학생의 성격요인 및 심리사회적 변인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적응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오세나 (2016). **부의 과보호와 남녀청소년의 자아분화 및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우은미 (2012). **대학생이 지각한 자아분화와 부모애착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우종필 (2012).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한나래.

육근선 (2013). **여고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진로태도성숙과의 관계: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검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윤지현 (2016). **대학생의 아버지 애착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자아분화와 성취동기의 매개효과-**.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기학 (1997). **고등학생의 진로태도성숙과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 연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이대희 (2010). **기독교대학생들의 자아분화와 정서지능이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성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은주 (2001). **청소년이 지각한 자아분화수준 및 부모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은화 • 이경우 • 이기숙 (1991). "한국 아버지의 역할 인식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11(1), 105-138.

이종범 (2005).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가족관련변인과 진로성숙간의 관계분석".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7(4), 25-41.

이지선 (2016). **부모의 과보호와 청소년의 목표추구지향성이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자기구실 만들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지현 • 김수영 (2016). "문항묶음: 원리의 이해와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5(2), 327-353.

장성숙 (2007). "가족주의와 현실역동상담의 일체적 관점".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3). 523-537

잡코리아 (2019). **대학생 5명 중 2명, "다른 전공 택할 걸 후회"**. https://news.sbs.co.kr/news (2020. 4. 10 download).

정남운 (2001). "과민성 자기애 척도(HSNS)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1), 193-216

정은영 (2008). **과보호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정수인 (2014). **신체장애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가 비장애자녀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내현적 자기애와 부모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영해 • 강희순 • 김정숙 (2012). "대학생의 취업준비 여부, 직업가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개발 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연구**, 13(1), 71-88.

정은지 (2012). **지각된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대학생활 적응-내현적, 외현적 자기애 성향의 매개효과-**.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혜정 • 조은경 (2007). "한국형 자기분화 척도 개발과 타당성에 관한 연구". **가족과 가족치료**, 15(1). 19-46.

조이정 (2014). **대학생의 부모화 및 과보호 경험, 내현적 자기애, 진로미결정 간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조현철 • 강석후 (2007). "구조방정식 모델에서 항목묶음이 인과 모수의 검정과 적합도 평가에 미치는 영향". **마케팅과학연구**, 17(3), 113-151.

통계청 (2019). **'시도별 맞벌이가구'**. http://kostat.go.kr 에서 (2020. 4. 5 download).

통계청 (2019). **'2019년 출생. 사망통계 잠정결과'**. http://kostat.go.kr 에서 (2020. 4. 5 download).

홍나영 (2011).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 양육 태도와 진로미결정의 관계-내현적 자기애의 매개효과-**. 성신

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 학회지: 임상, 19**(1), 161-177.

홍원표 (2013).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자아 분화가 학습된 무기력에 미치는 효과**.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Akhter, S., & Thomson, J. A. (1982). Overview: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9*(1), 12-20.

Amir, T., & Gati, I. (2006). Facets of career decision-making difficulties. *British Journal of Guidance and Counselling, 34*(4), 483-503.

Amir, T., Gati, I., & Kleiman, T. (2008). Understanding and interpreting career decision-making difficultie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6*(3), 281-309.

Bowen, M. (1976). Therapy in the practice of psychotherapy. In P. J. Guerin. Jr. (Ed.), *Family therapy: Theory and practice*. New York: Garden.

Bowen, M. (1986).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Y: Aronson.

Crites, J. O. (1971). The maturity of vocational attitudes in adolescence. American Personneland Guidance Association. Washington, DC.

Crites, J. O. (1978). Career maturity inventory (CMI). Manchester, MO: McGraw - Hill.

Fornell, C., & Larcker, D. F. (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 39-50.

Johnson, P., Schamuhn, T. D,. Nelson, D. B., & Buboltz, W. C. (2014). Differentiation Levels of College Students: Effects on Vocational Identity and Career Decision Making.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62*(1), 70-80.

Little, T. D. Rhemtulla, M, Gibson, K, & Schoemann, A. M. (2013). Why the items versus parcels controversy needn't be one. *Psychological Methods. 18*(3), 285-300.

Masterson, J. F. (2007). *The real self.* New York: Routledge.

Millon, T. (1996). *Disorders of personality: DSM- IV and beyond.* New York: Join Wiley & Sons Inc.

Shrout, P. E.,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Super, D. E. (1984). Career and life development. In D. Brown, L. Brooks, & Associate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Applying Contemporary Theories to Practice*. San Francisco: Jossey-Bass

Teyber, E. (2006). *Interpersonal process in psychotherapy:* an integrative approach.

The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Vol. 12, No. 1 - March 2022

The Effects of Parental Overprotection Perceived by University Students on Career Attitude Maturity : The Mediating Effects of Covert Narcissism and Self-Differentiation

Young Hwa Beag
Sookmyung Women University, Seoul, Korea
Bong Whan Kim
Sookmyung Women University, Seoul,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mpact of parental overprotection perceived by university students on career attitude maturity via mediating effect of covert narcissism and self-differentiation. In order to verify the research questions, a survey was conducted on 511 students attending and taking a leave of absence at a four-year university located in the metropolitan area.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using SPSS 25.0 and AMOS 25.0.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the variables was performed, and bootstrapping verification was conducte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s.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correlations between the research variables were confirmed. Second, covert narcissism and self-differentiation showed complete mediation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overprotection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This implies that the more university students perceive the parenting attitude of their parents as overprotective, the higher the tendency to covert narcissism and the lower the level of self-differentiation, which leads to a low career attitude maturity. In addition, as a result of compare the mediating effects of covert narcissism and self-differentiation, the effect of covert narcissism was shown bigger than that of self-differentiation. This means that covert narcissism is more effective in interventions that can lead to an enhancement in career attitude maturity than self-differentiation.

Key Words : Parental Overprotection, Covert Narcissism, Self-Differentiation, Career Attitude Maturity.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Department of Education, Sookmyung Women University, chungpa-ro 47, yongsangu, Seoul, Korea; E-mail: bongwhan@sm.ac.kr; Tel: +82-2-710-9387; Fax: 02-2077-7317.